

융복합시대에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명선¹, 박종원^{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²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In the Fusion Era of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young-Sun Park¹, Jong-Won Park^{2*}

¹Division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²Division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에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과 관계가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탐색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와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과 같은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제어 :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미결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emotional variables related to the career indecision of college students and to present effective action strategies by searching basic data that can prevent college students from undeciding their career path.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related to career indecision of college students an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fit of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daptive perfectionism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s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ndecision and adaptive perfectionism has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ndecision by mediat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addition, maladaptive perfectionism has a nega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it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indecision through mediation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employmen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such as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Key Words : Adaptive perfectionism, Maladaptive perfectionism,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Jong-won Park(steagle@daum.net)

Received January 25,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February 06,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대학은 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탐색과 성숙의 시기이며, 대학의 첫 번째 과제는 교육을 통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 4학년 대학생들 중에 40%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상당수는 짧게는 반년, 길게는 일 년 이상 지속해서 일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미래에 ‘남달리 잘할 수 있는 일(64.8%)’이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49.8%)’,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일(22.6%)’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2]. 따라서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그들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며[3],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한 진로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교의 다양한 지원이 요청된다[4,5]. 그러나 사회진출에 대한 부담감, 부모의 과도한 기대감, 진로선택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단순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을 파악하여,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완벽주의를 탈피하여 진로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진로미결정의 과정과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고, 진로미결정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심리적 변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미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친 염려로 진로의 결정을 힘들어 하고, 자기 평가, 직업정보의 획득, 목표 선정, 계획 수립, 문제 해결과 같은 진로결정을 위한 활동을 회피하기도 한다[6]. 특히 실패에 대한 과도한 근심을 가진 대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을 가질 수 있고, 결국 학점에 부정적 영향을 받기도 하며[7,8], 진로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된다. 이와 같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감의 결핍을 얻게 되고, 진로선택을 위한 열정이 줄어들어 진로결정하기 어려워진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불안한 감정을 지닌 대학생들은 진로탐색을 하는 것을 미루고, 진로정보를 획득하는 활동을 지체하며, 진로미결정의 상태를 유지한다[6]. 이러한 진로미결정은 인간이 얻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무능력을 의미한다[9]. 결국 진로선택의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한 높은 우려를 나타내는 대학생들은 진로결정 자체를

뒤로 미루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녔다[10,11],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을 의미한다[12]. 완벽주의는 2가지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첫째, 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를 지닌 정상적 완벽주의이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신의 성과를 가혹하게 평가하고, 성과와 기대치가 맞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이다[13].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닌 대학생들은 최적의 진로결정을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며, 이러한 현상은 진로미결정을 초래한다[14,15]. 진로선택에 있어서 실수에 대한 지나친 근심을 가진 대학생들은 목표성취 보다는 실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둔다[6]. 이러한 자기행동에 대한 의심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능력 자체도 의심을 한다[10]. 그래서 진로결정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과도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16],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역량을 의심하는 경향성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의 자기 의심은 성취라기보다는 결함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집중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다[6].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미래 행동과 관련한 가능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판단을 위한 기초가 된다[17]. 과거의 사건에 대해 실수와 실패만을 기억하는 대학생들은 미래의 행동에 대해 민감하게 예행연습을 하고[10,18], 과거에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경험과 관련된 자신의 결정을 심사숙고하게 된다.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향을 지닌 대학생들은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지니게 된다[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에 기초해 있다[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19]. 진로결정을 위한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거나 심사숙고하는 대학생들은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안한 감정을 지닌 채로 쉽사리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6]. 즉 자신의 성취능력을 의심하는 대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감정을 지니게 되고, 완벽함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진로결정을 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20].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하는 대학생들은 무기력한 지향성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21].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한 의심

을 지닌 대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진로의 목표를 세우거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6]. 이러한 진로미결정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강조된다[22].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진로결정을 하는데 다양한 변인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완벽주의[23], 정보 결핍[24], 자아의식, 헌신의 두려움[25], 불안[26], 합리적 결정방식[27], 자기효능감[28], 자아동일시의 수준이다[29]. 개인 외적 변인으로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친구와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30,31]. Periasamy 와 Ashby(2002)에 의하면, 완벽주의와 개인 내적 변인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32]. 그런데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변인들의 매개적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관계가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변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탐색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소재한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자기기입식이며 응답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가능한 솔직하게 기입하도록 권장하였다. 연구대상자 표집은 비확률표집인 유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80부 배포하여 271부를 회수하여 약 97%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있어 연구시간과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유의표집

을 선택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완벽주의 척도

완벽주의 척도는 Slaney의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 Scale-Revised:APS-R)의 적응적면과 부적응적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척도를 남순동(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채택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라고 하였다. 완벽주의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하위요인은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나누어졌으며, 적응적 완벽주의는 5문항,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8문항으로 분류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각 .707과 .840으로 나타났다.

2.2.2 진로미결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진로미결정척도(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의 K-CII는 5개의 하위요인(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 필요성 인식 부족, 외적장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모든 문항의 총합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930으로 나타났다.

2.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Bett와 Voyten(1997)이 만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_SF) 50문항을 이은신(2001)이 25문항으로 단축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등의 4개의 하위 영역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총합을 뜻하고 이에 대한 Cronbach α 계수는 .936이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과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확인과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경로계수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활용한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변인들의 평균값과 표준편차(sd)를 기술해보면, 진로미결정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640(sd .720), 완벽주의 하위요인인 적응적 완벽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472(sd .687)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2.938(sd .78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3.397(sd .502)로 설명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r=-.324,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r=.273, p<.01$)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347,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erfectionism	Adaptive perfection	222	1.60	5.00	3.472	.687	-.239	-.129
	Maladaptive perfectionism	222	1.00	5.00	2.938	.786	.070	-.401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222	2.09	4.71	3.397	.501	.149	-.268
Career uncertainty		222	1.00	4.57	2.640	.720	-.057	-.595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1	1			
2	.273**	1		
3	.347**	-.013	1	
4	-.071	.384**	-.324**	1

* $p<.05$, ** $p<.01$, 1= adaptive perfection, 2= maladaptive perfectionism, 3=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4= career uncertainty

하지만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71, p>.05$).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13,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변수인 대학생들의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을 포함한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한 측정모형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초기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1076.717, df=489, p=.000, SRMR=.083, RMSEA=.074, CFI=.775$ 등의 값을 보여주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낮은 표준화계수값과 설명이 낮은 변수를 제거하고,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수정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463.641, df=263, p=.000, SRMR=.067, RMSEA=.059, CFI=.902$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Model estimate

First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1076.717	489	.000	.083	.775	.074
Final model	name of fit index	x2	df	p	SRMR	CFI	RMSEA
	index	463.641	263	.000	.067	.902	.059

3.2.2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4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미결정 몰입에 있어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구조모형에서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적정수준을 보여주더라도 변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적절한 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적정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면, 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727, t=5.226, p<.001$),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eta=-.301, t=-3.469, p<.001$).

Table 4. Model estimate

Path	B	β	S.E.	C.R.
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796***	.727	.152	5.226
Mal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40***	-.301	.069	-3.469
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Indecision	-.432	-.243	.257	-1.678
Mal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Indecision	.511***	.394	.113	4.51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Indecision	-.594**	-.366	-.214	-2.775

* $p<.05$, ** $p<.01$, *** $p<.001$

한편, 적응적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242, t=-1.678, p>.05$)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94, t=4.515,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66, t=-2.775, p<.01$). 이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미결정 상태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안모델에서 모형의 적합지수가 낮을 경우 모델수정으로 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 적합지수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변수 간 공분산 설정으로 χ^2 값을 낮추고 적합도를 높여주었다. Fig. 1은 진로미결정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chi^2=359.820, df=197, p=.000, SRMR=.067, RMSEA=.061, CFI=.910$ 등의 값을 나타내어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2.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5는 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분해한 연구모형의 효과분해한 결과이다.

대학생들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beta=.727$)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직접효과($\beta=-.366$)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직접효과($\beta=-.242$)가 있고 간접효과($\beta=-.266, p<.05$) 및 총효과($\beta=-.508$)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beta=-.301$)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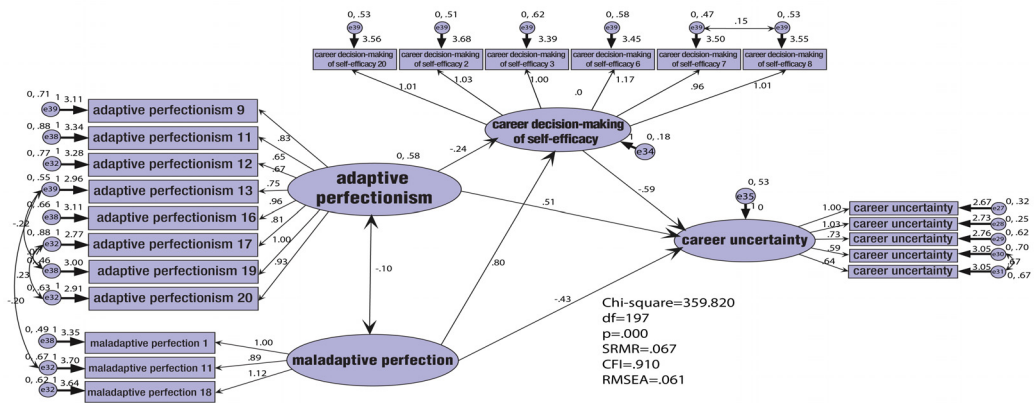


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727*		.727**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Indecision	-.366*		-.366*
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Indecision		-.242**	-.508**
Mal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301*		-.30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Indecision	-.366*		-.366*
Maladaptive perfectionism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Indecision		.394	.504

*p<.05, **p<.01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직접적인 효과(β=.394)가 있고 간접효과(β=.110, p<.05) 및 총효과(β=.504)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 p<.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과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적 완벽주의 및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한 연구모형의 효과검증 결과,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과 같은 성격적, 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을 관계를 규명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응적 완벽주의가 비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보다 더 높은 내적인 통제기제를 가지고 있고, 자기지향적인 긍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진로미결정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25,31]. 따라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진로탐색프로그램에 있어서 적응적 완벽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응적 완벽주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32], 우울을 감소시켜야 한다[33]. 또한 높은 진로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야 한다[34]. 완벽주의를 지닌 대학생들이 적응적 완벽주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생들과의 비교의식을 버릴 필요가 있으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취미, 종교, 자원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스터디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 전공 관련 전문가의 진로강연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적으로 규정된 완벽주의로서 진로미결정을 늘이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4].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잘못된 진로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부적절한 감정 때문에 쉽사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다[35]. 따라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닌 대학생들의 경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상담사의 전문적인 정서적 상담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미치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대학교의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한다거나 사회적, 가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보다 더 정확한 자기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적 완벽주의자의 성향을 보이고, 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진로미결정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

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24,34,35]. 정확한 자기평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핵심적 구성요소다[19].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 및 흥미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자기주도학습 능력진단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자기성찰 등 객관적인 자기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 개개인별로 강점과 약점을 탐색하고, 핵심역량을 진단하며, 탐색한 진로·취업 분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면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및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소재한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의적 표집을 함으로써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균형 있게 표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의 상호작용, 친구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개인 외적 변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 변인들을 위주로 진로미결정의 영향요인들을 탐색하였다라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정서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전공만족도, 취업가능성, 취업준비여부, 리더경험, 취업진로사이트, 취업준비, 진로상담, 동아리 참여, 인턴경험 등 행동적 특징을 포함하여 변인들의 상호작용과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 내적 요인들과 개인 외적 요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F. Vanessa, V. F. Freeman, J. G. Lenz & R. C. Reardon. (2017). Career Course Impact on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and Affective States. *Ideas and Research You Can Use*, 32, 1-14.
- [2] Jobkorea & Albamon. (2017). Financial News for Industry. Name of Web Site. <http://www.fnnews.com/news/201703221426241328>.
- [3] D. Brown. (2015).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 [4] S. Brown. (2015). Career intervention efficacy: Making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APA handbook of career*

- intervention, 1*, 61-78.
DOI : 10.1037/14438-004
- [5] B. Folsom, G. W. Peterson, R. C. Reardon & B. A. Mann. (2004). Impact of a Career Planning Course on Academic Performance and Graduation. *Journal of College Retention, 6*, 461 - 473.
- [6] J. C. Page. (2005). *Career Dcision-Making and the Self-Critical Aspects of Perfectionism*. Philosophy Doctor Dissertation in School of Education of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7] E. J. Brown, R. G. Heimberg, R. O. Frost, G. S. Makris, H. R. Juster & A. W. Leung. (1999).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Affect, Expectations, Attributions, and Performance in the Classroo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8*, 98-120.
DOI : 10.1521/jscp.1999.18.1.98
- [8] R. O. Frost, K. L. Trepaaier, E. J. Brown, R. G. Heimberg, H. R. luster, G. S. Makris & A. W. Leung. (1997). Self-monitoring of Mistakes Among Subjects High and Low in Perfectionistic Concern over Mistak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209-222
- [9] F. Guay, C. Senecal, L. Gauthier & C. Fernet.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DOI : 10.1037/0022-0167.50.2.165
- [10] R. O. Frost, P. Marten, C. Lahart & R. Rosenblate.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11] D. P. Johnson & R. B. Slaney. (1996). Perfectionism : Scale Development and a Study of Perfectionistic Clien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nei, 37*, 29-41.
- [12] F. T, Leong & S. Ghervinko.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DOI : 10.1177/106907279600400306
- [13] D. E. Hamachek.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14] W. F. Gayton, R. H. Clavin, S. L. Clavin & I. Broida. (1994). Further Validation of the Indecisiveness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5*, 1631-1634.
DOI : 10.2466/pr0.1994.75.3f.1631
- [15] R. B. Slaney, J. S. Ashby & J. Trippi. (1995). Perfectionism :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3), 279-297.
DOI : 10.1177/106907279500300303
- [16] G. F. Reed. (1985). *Obsessional Experience and Compulsive Behavior : A Cognitivestructural Approach*. New York : Academic Press.
- [17] A. Bandur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DOI : 10.1037//0033-295x.84.2.191
- [18] P. M. Dibartolo, A. Dixon, S. Almodovar & R. O. Frost. (2001). Can Cognitive Restructuring Reduce the Disruption Associated with Perfectiouistic Concerns? *Behavior Therapy, 32*, 167-184.
DOI : 10.1016/s0005-7894(01)80051-4
- [19] N. E. Betz, K. Klein & K.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 f Career Assessment, 4*, 47-57.
- [20] P. L. Hewitt & G. L. Flett.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 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13.
DOI : 10.1037//0022-3514.60.3.456
- [21] D. M. Dunkley, K. R. Blankstein, J. Halsall, M. Williams & G. Winkworth.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437-453.
DOI : 10.1037//0022-0167.47.4.437
- [22] S. H. Osipow.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DOI : 10.1006/jvbe.1999.1704
- [23] J. E. Rohlfling. (2013). *Structure of Perfectionism and Relation to Career Indecision*. A Dissertation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in Arizona State University.
- [24] E. Rassin. (2006). A Psychological Theory of Indecisiveness. Netherlands. *Journal of Psychology, 63*, 2-13.
- [25] F. T. L. Leong & S. Chervinko.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5-329.
DOI : 10.1177/106907279600400306
- [26] D. R. Fuqua, J. L. Newman, & T. B. Seaworth. (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54 - 158.
DOI : 10.1037//0022-0167.35.2.154

- [27] W. C. Mau. (1995). Decision-making Style as a Predictor of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and Treatment Gai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89-99.
DOI : 10.1177/106907279500300107
- [28] N. E. Betz & Luzzo. (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13 - 428.
DOI : 10.1177/106907279600400405
- [29] C. R. Cohen, J. M. Chartrand & D. P. Jowdy. (1995).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ndecision Subtypes and Ego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440 - 447.
DOI : 10.1037/0022-0167.42.4.440
- [30] D. E. Felsman & D. L. Blustein.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279-295.
DOI : 10.1006/jvbe.1998.1664
- [31] A. L. Guerra & J. M. Braungart-Rieker. (1999).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in College Students : The Roles of Identity Formation and Parental Relationship Factor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7, 255-266.
DOI : 10.1002/j.2161-0045.1999.tb00735.x
- [32] J. S. Ashby & K. G. Rice. (2002). Perfectionism,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 197-203.
DOI : 10.1002/j.1556-6678.2002.tb00183.x
- [33] K. Y. Kawamura, S. L. Hunt, R. O. Frost, & P. M. DiBartolo. (2001). Perfectionism, Anxiety, and Depression: Are the Relationships Independ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291-301.
- [34] K. LoGicero & J. S. Ashby. (2000).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Self-Reporte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5(2), 47-56.
DOI : 10.1300/j035v15n02_06
- [35] J. D. Emmett & G. W. Minor. (1993). Career Decision-Making Factors in Gifted Young Adul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350-36.
DOI : 10.1002/j.2161-0045.1993.tb00409.x

박 명 선(Park, Myoung Sun)

[정회원]



- 2003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문학사)
- 2007년 2월 : 호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12년 8월 :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여성복지, 연명치료
- E-Mail : myoung8064@hanmail.net

박 종 원(Park, Jong Won)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사례관리, 기독교사회복지
- E-Mail : steagle@daum.net